



김진규(백석대)

##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칼빈의 제왕시 주석 방법론을 검토, 재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잘 알려진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성경해석 방법론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칼빈의 제왕시 주석 방법을 하나씩 분석해 보려고 한다. 칼빈의 해석 원리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sup>1)</sup> 이 연구를 통해서

\* 이 연구는 한국개혁신학회, 제42차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김진규, “칼빈의 시편 해석 방법론 연구: 제왕시를 중심으로”, 『루터 선언 500주년과 한국교회』(한국개혁신학회, 제42차 학술심포지엄; 2017년 5월 27일;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76-97. 논평해 주신 안양대학교 방정열 박사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권오윤 박사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2017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로 수행한 것임을 밝힌다.

1) 김성수, “칼빈의 성경해석: 시편 주석을 중심으로”, 『ACTS 신학과 선교』 8 (2004), 82-94; 라영환, “칼빈의

칼빈이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한다.

신학적 해석은 어떤가? 주로 학자들이 칼빈의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많이 강조하지만 신학적 해석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필자의 이 연구를 통해 칼빈의 해석은 다분히 신학적 해석도 포함됨을 또한 밝히려 한다.<sup>2)</sup> 이 짧은 소고에 5권으로 구성된 칼빈의 시편 주석 모두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시편 중에서 전략적으로 배치된 몇몇 제왕시(시편 2, 72, 89, 110, 132)를 선별하여 그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주로 분석하려고 한다.<sup>3)</sup>

한 가지 연구의 단서를 달자면 지금까지 칼빈을 연구한 학자들은 주로 칭찬 일변도로 칼빈을 평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칼빈의 주석학적 약점을 종종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칼빈의 주석가로서 탁월성도 있

---

성경해석학: 칼빈의 역사적 문법적 방법론에 대한 재조명”, 『개혁논총』 11 (2009), 243.

- 2) 루이스 벌콕의 고전적인 해석학 저술은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을 성경해석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신학적 해석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갖가지 해석학적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필자는 우려한다. 그러므로 칼빈의 해석학에서 이 요소가 분명히 드러남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임을 밝힌다. Louis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1988).
- 3) 칼빈의 해석학을 시대적 배경에서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할 만큼 광범위한 주제이다. 이에 대한 탁월한 연구는 물러와 톰슨이 편집한 다음 책을 참조하길 바란다. R. A. Muller and J. L. Thompson(eds.),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ra of the Reformation: Essays Presented to David C. Steinmetz in Honor of His Sixtieth Birthday* (Grand Rapids: Eerdmans, 1996). 본 연구는 칼빈의 시편 주석 방법론을 정통 해석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필자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초기 루터의 시편 해석에는 중세의 4중적 의미를 찾는 해석 방법과 글자와 영의 모델을 따른 이분법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기독교적 해석도 상당 부분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미되어 있다. 그런데 후기의 루터는 이런 중세의 해석 방법들을 버리고 좀 더 문자적 역사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기독교적 해석도 본문에 기초하거나 모형론적 해석을 사용함으로써 해석학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종교개혁 2세대에 속한 칼빈에게는 루터의 초기의 해석학적 잔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루터의 후기의 발전된 해석학을 더욱 발전시킨 해석학적 성숙을 보인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의 큰 차이점은 루터는 구약의 예언을 신약성경과 주로 바로 연결시켜 해석하지만, 칼빈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기 전에 구약 내에서도 성취되었는지 먼저 관찰한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칼빈의 해석학은 현대 구약해석학의 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루터의 관점은 칼빈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김진규, “루터의 시편 해석 방법론 연구: 1517년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가?”, 『제IV권: 세션III 분과별 논문발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2017년 10월 20-21일; 소망수양관), 6-26.

지만 때로 그가 범한 주석학적 오류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의 주석을 사용하는 독자들이 그의 오류까지 답습하는 우(愚)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 문법적/문예적 해석

칼빈의 성경해석은 문법적 주석일 뿐만 아니라 문예적 주석도 탁월하다. 오늘날과 같은 수사비평, 서사비평, 문학비평, 구조비평, 독자반응비평과 같은 학문화된 방법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는 고전수사학이 전해준 수사학적 기법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과 함께 문예적 해석도 연구에 포함시키고 있다. 칼빈은 원어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 이의 어원 연구, 용례 연구, 문맥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sup>4)</sup> 이제 그의 문법적/문예적 해석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한다.

### 1) 명료한 문자적 의미에 기초한 주석

칼빈의 문법적/문예적 해석의 핵심은 명료한 문자적 의미(plain literal sense)를 추구하는데 있다. 그 의미가 원래 역사에 속한 의미든, 미래에 대한 예언이든, 모형론적 의미든, 모두 분명하게 드러난 문자적 의미에 기초하고 있다. 칼빈의 문자적(literal) 의미는 결코 문자주의(literalism)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sup>5)</sup> 칼빈이 문자적 의미를 추구한다고 해서 단 한 가지 의미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문자적 의미는 다

---

4) D. L.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59-72.

5) 오늘날 대표적으로 세대주의 신학은 문자주의 오류의 함정에 자주 빠진다. V. S. Poythress, *Understanding Dispensationalists* (Grand Rapids: Zondervan, 1987), 87-96.

중적 성취를 내포한 말이었다.<sup>6)</sup>

칼빈이 시편 72편 대부분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이해했다면 17절(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 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도 분명히 솔로몬이나 다윗 왕가의 왕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 구절의 명료한 문자적 의미는 이 땅의 왕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힌다. 지상의 다윗 왕좌의 왕들은 솔로몬 이후에 곧 분열되었고 쇠퇴해졌고 포로기 이후에는 다시 세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고 그의 이름이 해처럼 장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의 분명한 문자적인 의미가 오직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석한다.<sup>7)</sup>

칼빈은 시편 89편 28-29절을 주석하면서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라는 말과 다윗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다고 본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구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된다고 주석한다.<sup>8)</sup> 이도 이들 표현이 분명하게 의미하는 바에 기초한 주석이다.

20세기 후반 시편의 구성적 연구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제럴드 윌슨(Gerald Wilson)은 시편 89편을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파기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시편 제4-5권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이해한다.<sup>9)</sup> 이런 윌슨의 견해는 시편 89편 46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시편

6) 라영환, “칼빈의 성경해석학”, 245, 247.

7)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J. Anderson(trans.), (Grand Rapids: Baker, Repr, 2005), 3:116-118.

8)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437.

9) G.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214-215.

110, 132, 144편을 보면 다윗 왕조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포로귀환 이후에 다윗 왕조에 대한 희망은 이들 시편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고 나타남을 발견하게 된다.<sup>10)</sup> 그런데 칼빈은 시편 89편 46절에 나오는 “언제까지니이까”(מָה־עַד/아드 마)라는 명료한 표현에 착안하여 시인은 다윗 언약에 대한 확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1)</sup> 칼빈의 본문의 명료한 의미에 대한 집착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귀중한 안내역을 한다.

칼빈은 시편 110편 2절(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을 주석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능의 홀을 멀고도 넓게 펼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광대하게 확장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이 말씀이 다윗에게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본문의 명백한 의미에 기초해서 밝힌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나라는 당시의 열강들의 세력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시온에서 왕으로 머물지 않고 그의 권능의 홀이 세상의 가장 먼 지역까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권능의 홀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뭉쳐서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께 대항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서 내려오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석한다.<sup>12)</sup> 칼빈의 그리스도 중심적 주석은 철저히 본문에 드러난 명백한 의미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구약논단』 15/2 (2009), 83-110; 김진규, “시편 144편의 전략적 배열의 관점에서 본 저작 배경”, 『구약논단』 21/3 (2015), 69-98.

11)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452-453.

12)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300-301.

## 2) 단어의 의미 설명

본문의 명백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칼빈은 성경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설명한다. 칼빈의 명료한 문자적 의미의 추구가 단어 해석이나 원문 해석이나 어원, 용례, 문맥 연구에 모두 드러난다.

칼빈은 시편 2편 4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웃으심’이 사용된 의도를 두 가지로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첫째 이는 “악인들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큰 군대가 필요 없음”을 의미하고 그가 원하시면 언제라도 너무나 쉽게 진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란이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시며 그의 분노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조소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삼으라고 권고한다.<sup>13)</sup> 이어서 5절에 나오는 “그 때에”(אז/아즈)라는 부사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적절한 시기”를 가리킨다고 세부적으로 설명한다.<sup>14)</sup> 5절에 “이르시기를”이라는 평범한 동사도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구체적인 의미를 밝힌다.<sup>15)</sup>

칼빈은 거의 모든 단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주석한다. 예를 들면, 시편 2편 10절에 나오는 “이제”(הנה/아타)라는 부사의 의미(개역개정판 한글성경은 번역하고 있지 않음)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는 “신속한 회개의 필요성”을 뜻하며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항상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석하고 있다.<sup>16)</sup> 칼빈은 이렇게 거의 모든 중요한 단어들을 주석함을 통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려고 한다.

13)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4.

14)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4.

15)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5.

16)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22–23.

### 3) 원문에 기초한 주석

칼빈은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어휘는 꼭 원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힌다. 칼빈은 시편 72편 3절에 사용된 מַלְאָכָי(살롬)이라는 말이 평화, 휴식, 평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17)</sup>

칼빈은 시편 110편 3절을 주석하면서 אֲנֹכִי(알두트/젊은이들)라는 말이 복수형임에 착안하여 “집합 명사”로 사용된 것을 지적한다. 이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를” 가리키는 명사라고 주석하고 있다.<sup>18)</sup>

칼빈은 칠십인역보다 주로 마소라 사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시편 72편 5절을 주석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יִירָאוּךָ(이라우카)가 문맥상 잘 맞지 않지만 이를 선택하여 “They shall fear thee”(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며)라고 번역한다.<sup>19)</sup>

오늘날 다수의 역본들은 여기서 칠십인역을 따라 וַיִּירָאוּךָ(브야아릭/*καὶ συμπαραμηνεῖ*[카이 쉘파라메네이]; 그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시고)이라고 고쳐서 번역하고 있다(NIV, RSV, NRSV).<sup>20)</sup>

칼빈은 히브리어 구문에도 상당한 이해력을 갖고 있다. 시편 72편 4절에 사용된 בְּנֵי אֲבִיּוֹנִים(버네 에버온)이라는 표현이 문자적인 “압제당하는 자의 자녀”(the children of the afflicted)란 말이 아니라 “압제당

17)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03.

18)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303.

19)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01, 106.

20) 개역개정판 한글성경과 ESV는 마소라 사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 칼빈이 주석하고 있는 것처럼 *thee*는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개역개정판 한글성경은 아예 “주를”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6절에 나오는 주어를 누구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인가 왕인가? 칼빈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칼빈 자신의 주석과 모순이 생긴다. 그는 5절을 주석하면서 이전 구절들에 왕을 가리키는 말은 3인칭 단수 인칭대명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06–107.

하는 자”(the afflicted)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sup>21)</sup> 아쉽게도 칼빈은 구문에 대한 좋은 관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용된 **יְלָדֵי צָרָה**이라는 말을 잘못 번역하고 있다. 이 말은 주로 “궁핍한 자”를 가리킨다(ESV, NIV, RSV, NRSV).

칼빈이 원문을 상당히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으나 시편 72편 16절 (and they shall go forth from the city as it were a plant of the earth)에 나오는 **צֶמֶח**(에세브)라는 말을 “나무”(a plant)로 번역한 것은 문맥상 어색하다.<sup>22)</sup>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은 이를 땅의 “풀”(grass)로 번역하고 있다(ESV, NIV, RSV, NRSV).

칼빈의 구약 주석에 대한 탁월한 저술을 남긴 퍼킷(D. L. Puckett)은 칼빈이 주석한 것을 보면 히브리어에 상당히 유능했음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밝힌다. 1) 그가 강의를 행한 방법을 보면 히브리어에 상당히 정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먼저 히브리어로 본문을 읽고 대충 번역한 이후에 나중에 주석을 하면서 다듬는 것이 그의 주석의 절차였다고 본다. 2) 그는 꽤 광범위한 어휘 연구를 할 정도로 히브리어에 유능했다. 3) 그는 히브리어 문법에 기초해서 때로는 성경을 해석했다. 4) 히브리어 문체의 독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sup>23)</sup>

그러나 퍼킷의 관점은 오직 칼빈의 히브리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밝힌 것 같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칼빈은 히브리어를 설명하면서 때로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범한 것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히브리어에 대한 주석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은 권위 있는 사전이나 문법책을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21)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05. ESV, NIV는 이 구문을 “the children of the needy”로 번역하는데 이는 문자적인 번역이다. 그냥 “the needy”라고 번역한 RSV, NRSV 번역이 구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이다.

22)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15.

23)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59.

#### 4) 어원 연구

칼빈은 시편 89편 48절(What man shall live, and shall not see death?)을 주석하면서 man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מָנֵם(게베르)의 어원에 주목한다. 이 말은 동사 מָבַר(가바르)에서 온 것인데, 이는 “그는 강했다” 혹은 “그는 이겼다”는 뜻을 밝힌다. 시편 저자는 의도적으로 “게베르”를 사용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보았다.<sup>24)</sup>

칼빈은 시편 3편 2절에 나오는 “셀라”라는 말을 주석하면서 이 말을 어떤 주석가는 “진실로”라는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주석가들은 이를 “영원히”라는 의미로 주석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칼빈은 이 말의 어원이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שָׁלַח(살랄)에서 왔기 때문에 이는 “노래를 하면서 하모니를 이루어 목소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석하고 있다.<sup>25)</sup>

칼빈은 또한 “여호와”(יהוה)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주석하면서 이 말이 “존재하다”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הָיָה(하바)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존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보존하신 분”으로 이해한다.<sup>26)</sup>

칼빈이 어원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어원 연구는 그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높은 신뢰를 두지 않는 주석 방법이었다.<sup>27)</sup> 오늘날 주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의 어원에 기초한 의미파악은 어원화의 오류에

24)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455.

25)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30.

26)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61. 칼빈이 말한 יהוה가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드물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의 주된 의미는 “되다”(become)라는 뜻이다. “존재하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말은 יהי 라는 단어이다. F. Brown, et al., “יהוה,”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Ma: Hendrickson, 1979), 217.

27)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60.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sup>28)</sup>

## 5) 용례 연구

칼빈이 어원 연구보다 좀 더 신뢰를 두고 사용한 주석 방법은 용례 연구였다. 같은 말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살핍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확증하곤 했다.<sup>29)</sup>

칼빈은 시편 110편 4절을 주석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מֶלֶךְ(코헨)을 유대인들이 “왕자” 혹은 “우두머리”로 번역한 것을 반박한다. 그는 “귀족이나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을 מֶלֶךְ(코하님)이라고 칭하는 용례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번역에 대하여 다윗이 그리스도께 왕의 존엄보다 더 열등한 단지 우두머리라는 호칭을 주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멜기데섹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왕자로 칭하는 취지가 무엇이겠는가? 이는 문맥상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는 מֶלֶךְ의 보편적인 용례를 통해 이는 제사장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본다.<sup>30)</sup>

칼빈은 시편 55편 22[23]절에 사용된 בֵּית(여흠카)라는 말을 주석하면서 다수의 주석가들이 이 말을 “집”(개역개정판도 이렇게 번역함)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대해 의아해 한다. 이 말은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בָּהַ(야하브)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너의 선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도 “집”으로 번역된 용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물”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sup>31)</sup>

28) D. A. Carson, *Exegetical Fallacies* (Grand Rapids: Baker, 1984), 26–32.

29)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60.

30)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304.

31)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343–344.

## 6) 문맥 연구

칼빈은 단어를 주석하면서 의미 결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문맥이다. 그는 어원이나 용례보다 문맥 연구에 더 큰 비중을 둔다.<sup>32)</sup>

칼빈은 시편 2편 12절을 주석하면서 ‘아들’이라고 번역된 ‘바르’(בַּר)가 갈데아어(아랍어)로는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순수한’이라는 뜻을 알고 있다. 그리고 칠십인역에는 이를 “παιδείας”(파이데이아스/좋은 도덕, 미덕, 훈계 등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고 아랍어 역본과 아랍어 역본, 불가타 역본, 에티오피아 역본이 사실상 칠십인역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도 알고 있다. 칼빈은 이를 “순수한 것에 입 맞추라 혹은 순수한 것을 포옹하라”라고 어떤 해석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상하고 꽤 강요된 해석”이라고 여긴다. 칼빈은 ‘아들’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7절)는 말을 사용하므로 문맥상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sup>33)</sup>

시편 2편 12절의 마지막 단어인 בַּר(보/문자적으로 ‘그에게’라는 뜻)의 해석에 대해서 칼빈은 여기에 사용된 인칭대명사 접미어가 그리스도나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본다. 개역개정판 한글성경은 이를 아예 ‘여호와께’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문맥상 앞에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했으니, 이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시편 전체의 문맥과 잘 어울린다고 본다.<sup>34)</sup>

칼빈은 시편 72편 3절을 주석하면서 일부 주석가들이 מַלְאִכָּי(비츠다카/의로 말미암아[개역개정])에 사용된 מַ가 필요 없는 것처럼 번역하지만 칼빈은 이는 문맥상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산들”과 “작은 산들”에 번역이 넘치는 것은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32)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60, 63–66.

33)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24–25.

34)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26–27.

시 “IN righteousness”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5)</sup>

칼빈은 시편 72편 1-2절에 사용된 “미쉬파트”(משפט)를 “심판”(judgment(s))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정의”(justice)라고 번역하고 있다(ESV, NIV, RSV, NRSV).<sup>36)</sup> 아마 칼빈이 이를 κρίμα(크리마/심판; 1절)/κρίσις(크리시스/심판, 정의; 2절)라고 번역하고 있는 칠십인역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sup>37)</sup> 미쉬파트가 “심판” 혹은 “정의”라고 번역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의 의미가 문맥에 더 적합하다. 칼빈이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때로는 단순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 7) 문예적 특성 연구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수사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논증 방법이나 비유적 표현을 밝히는데 익숙하다. 이들이 말하는 문자적 의미란 비유적이거나 은유적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도 포함해서 이해하고 있다.<sup>38)</sup>

### (1) 의인법

칼빈은 시편 2편 3절을 주석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수사법이 의인법(prosopopoeia)이란 사실을 밝힌다. 여기서 시인은 적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반역적이고 불경건한 음모

---

35)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04.

36)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01.

37) κρίσις(2절)는 “심판”과 “정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κρίμα(1절)는 주로 전자의 의미로만 사용된다. W. F. Arndt and F. W. Gingrich, “κρίμα,”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2n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450-451. Arndt and Gingrich, “κρίσις,” 452-453.

38) R. A. Muller,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16th & 17th Centuries,” D. K. McKim(ed.), *Historical Handbook of Major Biblical Interpreters* (Downers Grove: IVP, 1998), 129.

를 드러낸다고 주석하고 있다.<sup>39)</sup>

## (2) 은유법

칼빈은 시편 2편 3절의 “맨 것”과 “결박”이라는 말이 은유적 의미로 사용된 것을 밝힌다.<sup>40)</sup>

시편 89편 2절(Mercy shall be built up for ever)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여기에 사용된 **הָבִינָה**(이바네/세워질 것이다)가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밝힌다. 마치 건축물을 세우듯이 인자하심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는 은유적 용법을 간파하고 있다.<sup>41)</sup>

## (3) 비유적 표현

칼빈은 시편 72편 3절에 사용된 “평화를 생산하는 것”(the bringing forth of peace; 개역개정판은 “평강을 주며”라고 번역함)이라는 표현이 땅의 비옥에서 나온 비유적 표현임을 밝힌다.<sup>42)</sup> 시편 110편 7절(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께 군사적인 용기를 비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sup>43)</sup>

## (4) 이미지의 파악

칼빈은 시편 72편 15절에 사용된 “스바의 금”을 주석하면서 이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려면 “외적 영광의 이미지”로서 영적인 세계를 묘사

---

39)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3.

40)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3.

41)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418, 420. 개역개정판 한글성경은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라고 능동형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원문은 “인자하심”이 주어이고 “세운다”는 동사가 수동형(니팔형)으로 사용되었다.

42)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03.

43)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309.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sup>44)</sup>

### (5) 환유법

칼빈은 시편 72편 16절의 “레바논”이 땅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곳을 대신해서 사용된 환유법임을 밝힌다.<sup>45)</sup>

### (6) 제유법

칼빈은 시편 89편 51절(with which they have reproached the footsteps of thy Messiah, [or thy Anointed].)을 주석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발자국”(footsteps)은 “발”(the feet)을 가리키는 제유법임을 밝힌다. 그리고 “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환유법이라고 주석한다.<sup>46)</sup>

### (7) 과장법

칼빈은 시편 132편 2-5절에 사용된 표현이 과장법이라고 밝힌다. 2절에 나오는 다윗의 맹세도 엄격한 의미의 맹세가 아니라 한정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는 말이나 자거나 졸지 않겠다는 말도 과장법의 관점에서 해석한다.<sup>47)</sup>

## 3. 역사적 해석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기본적인 해석 방법으로 채

---

44)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14.

45)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16.

46)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458.

47)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5:145.

택하고 있지만, 칼빈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헌신은 당대의 다른 종교개혁자들보다 두드러진다. 그의 주석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당대의 다수의 주석가들이 구약의 예포나 예언들을 신약과 바로 연결시켜서 해석하지만 칼빈은 먼저 그 본문이 저자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의 성취를 먼저 확인한다. 이런 경향은 칼빈의 제왕시 해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당대의 주석가들이 제왕시를 주로 메시아적 관점에서 해석을 했지만 칼빈은 먼저 본문에 나타난 왕을 저자가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 왕이나 다윗 왕가의 왕들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 먼저 살핀다. 그 이후에 모형론적으로 혹은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sup>48)</sup> 이런 성향 때문에 칼빈은 종종 유대주의자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sup>49)</sup> 칼빈이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인문주의자로서 그의 교육적 배경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안명준은 그의 글에서 칼빈이 인문주의자로 훈련받은 배경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는 라 마르세 대학(College of La Marche)에서 공부하면서 인문주의적 소양을 훈련 받았는데, 그는 이곳에서 유명한 라틴어 학자인 마두린 코디어(Mathurin Cordier) 밑에서 라틴어를 배웠다. 칼빈은 에라스무스와 로올라를 배출한 몽테규 대학(College of Montaigu)으로 옮겨 베다, 안토니오 코로넬, 존 메이저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 밑에서 철학, 수사학, 교부들의 작품들을 배우게 된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오를레앙 대학(University of Orleans)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법학과 수사학을 배운다. 그는 또 부르지 대학(University of Bourges)으로 옮겨 헬라어를 배웠고, 그는 파리 왕립 대학(Royal College)에서 다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웠고,

48) 이런 관점에서 칼빈은 오늘날 구약해석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하경택, "시편 82편의 해석과 적용: 하나님이며, 이 땅을 심판하소서", 『구약논단』 15/3 (2009), 49-66. 하경택은 구약본문 해석 시에 양극단을 피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49)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1, 5-6, 53, 56-57.

나중에 바젤에서 히브리어를 더 배우게 된다.<sup>50)</sup> 칼빈은 23세의 나이에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Calvin's Commentary on Seneca's *De Clementia*)을 써서 당시에 에라스무스에 버금가는 인문주의자로 명성을 날렸다.<sup>51)</sup> 퍼킷은 칼빈의 역사적 해석이 주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먼저 쓰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가 「관용론」을 주석하는 방법은 당시의 인문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본문을 고치고, 구조, 어휘, 숙어를 분석하고, 본문을 이의 원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sup>52)</sup> 그의 이런 학문적인 훈련은 칼빈의 주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1) 저자에 대한 연구

김성수에 따르면 칼빈의 성경주석의 첫 번째 대전제는 “성령의 조명 하심에 의해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작업”으로 본다.<sup>53)</sup>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저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저자와 수신자가 누구인가? 저자의 사회적, 정치적, 지리적, 종교적 배경은 어떤 것인가? 저자의 세계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알수록 본문을 더욱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시편 72편 표제를 주석하면서 칼빈은 *לְשׁוֹלוֹמוֹ* (리설로모/솔로몬에 의해 혹은 솔로몬을 위해)에 사용된 ‘라메드’(ל)가 ‘~의해’ 혹은 ‘~위해’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음에 감안하여 후자의 의미로 번역한다. 그 이유는 시편 72편의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20절)라는 말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다윗이 이 시편을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것으로

50) 안명준, “칼빈에 따른 성경해석의 두 원리”, 『조직신학연구』 19 (2013), 91-92.

51) 안명준, “칼빈에 따른 성경해석의 두 원리”, 93.

52)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52.

53) 김성수, “칼빈의 성경해석: 시편 주석을 중심으로”, 82.

로 본다.<sup>54)</sup> 저자에 대한 이런 이해는 곧 시편 72편 전체의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칼빈은 시편 89편을 주석하면서 표제에 나오는 “에스라임 에단”에 대해서 상당히 긴 주석을 한다. 먼저 여기 등장하는 에단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실치 않음을 인정한다. 솔로몬 당시의 탁월한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인 에단(왕상 4:31)을 고려하면, 그가 솔로몬 사후까지 오래 살지 않았다면 본 시편의 내용과 맞지 않음을 지적한다. 칼빈은 시편의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윗 왕조가 상당히 약화된 시점, 그리고 사람들의 상당수가 배교한 시점을 감안하여 여로보암의 음모로 나라가 분열된 시점으로 본다.<sup>55)</sup> 그런데 칼빈은 39절을 주석하면서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라는 말이 여로보암의 시대에 잘 맞지 않음을 인정한다. 이는 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한 것을 가리킨다고 그는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에단이 이 시편의 저자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독자가 자신에게 맞는 해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문을 열어놓는다.<sup>56)</sup>

칼빈은 동시에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심을 강력히 주장한다. 시편 110편 4절을 주석하면서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의도를 성령님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 “성령께서 여기서 이 왕이 다른 모든 왕들보다 탁월하고 구별된 뭔가 구체적이고 특별한 것을 가리킨다는데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주석한다.<sup>57)</sup>

---

54)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99–100.

55)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417–418. 그러나 현대의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시편이 훨씬 이후에 쓰인 것으로 본다. 주로 요시아 왕의 전사의 시점으로부터 유다의 멸망의 시점까지의 어느 시점으로 본다. Hans-Joachim Kraus, *Psalms 60-150: A Commentary*, H. C. Oswald(trans.), (Minneapolis: Augsburg, 1989), 203. 이렇게 되면 에단을 에스라임으로 표제를 단 것은 후대의 편집자가 다윗의 찬양대 인 도자 중에 한 사람인 에단(대상 15:17, 19; 여두둔과 동일인)을 세라의 아들 에단(대상 2:6)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에단은 꼭 에단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에단의 후손이 지은 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J. H. 스텝 외(편집), 『출리원 주석 성경: NIV 스테디 바이블』, (김지찬 외 역), (서울: 예장, 2008), 877, 938. 원제는 J. H. Stek, et al. (eds), *The NIV Study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5).

56)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449.

57)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304–305.

칼빈은 시편 132편 17절의 ‘뿔’에 대해 주석하면서 영감된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의 뿔이 꺾이고 시들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의 뿔이 다시 돌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뿔에 대한 메시아적 이해는 곧 영감된 저자로부터 온 것임을 밝힌다.<sup>58)</sup>

퍼킷은 칼빈에 의하면 인간 저자인 선지자의 의도와 성령의 의도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칼빈은 스가랴서를 주석하면서 “선지자의 마음과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동시에 레위기 11장 13절을 주석하면서 주석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항상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인간 저자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 사이를 구분하길 꺼린다. 예를 들면 칼빈은 요엘서 2장 28절(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을 주석하면서 이 말씀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인용함으로써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것을 밝힌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모든 육체”(all flesh; 개역개정판은 “만민”으로 번역함)라는 표현이 먼저 선지자가 사용한 과장법이라고 밝힌 후 이어서 성령의 의도였다고 본다.<sup>59)</sup> 칼빈에게는 성령의 의도와 인간 저자의 의도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칼빈의 저자에 대한 주석은 현대 주석가들이 오직 역사적 맥락에서 인간 저자의 의도를 찾으려는 시도와는 상당히 다르다.

## 2) 역사적 배경 연구

칼빈은 본문을 자신의 당대 청중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 원래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먼저 밝힌다. 즉 칼빈은 본문이 원래 만들어진 환경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칼빈은 시편 50편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하길 거

---

58)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5:160-161.

59)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35.

부한다. 왜냐하면 본문을 역사적 배경에서 볼 때 저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부패와 남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sup>60)</sup> 또 퍼킷에 따르면 칼빈의 역사적 해석은 다중적 성취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칼빈이 기독교 해석자들 사이에서 발견하는 더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어떤 구약 예언의 역사적 성취에 대해 신약 시대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많은 해석자들은 그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할 욕망으로 이전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간과했다.<sup>61)</sup>

이런 관점에서 칼빈의 역사적 해석은 비록 구약의 그 본문이 신약에서 명확하게 성취된 예언들이라고 할지라도 저자 당시나 이전의 역사적 성취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다.

시편 2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적들에 대해서 칼빈은 국내의 적들과 이방나라들을 모두 포괄하는 적들로 보고 있다.<sup>62)</sup> 칼빈은 본문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라는 복수형에 착안하여 만약 당시 역사적 상황의 관점에서 사울 한 사람만이 적이었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sup>63)</sup> 이방나라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이유도 다윗이 스스로 왕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변증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성경적 논리이다(6절). 다윗에 대한 공격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

60)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67.

61)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69.

62)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0.

63)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0.

본다.<sup>64</sup> 칼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단지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적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sup>65</sup> 6절에 나오는 ‘시온’에 대해서도 칼빈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과 연관이 있음에 착안하여 다윗의 통치는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석한다.<sup>66</sup> 7절을 주석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이 원래 역사적인 맥락에서 다윗에게 적용된 것임을 밝힌다. 이는 당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왕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아 ‘신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표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낳은 것으로 이해한다.<sup>67</sup>

칼빈의 역사적 해석은 오늘날 역사비평에서 추구하는 본문에서 재구성된 역사나 편집된 역사적 배경을 뜻하지 않는다. 그의 역사적 해석은 대체로 성경 내에서 드러난 역사적 의미를 추구한다.<sup>68</sup>

### 3) 본문의 원래 역사적 맥락에서의 의미와 함께 신약에서 완성된 의미 연결

칼빈의 역사적 해석이 오늘날 역사비평학자들이 시편을 오직 구약의 제의적 상황에서 보려는 시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물론 앞의 시편 50편의 실례에서 보았듯이 오직 제의적 상황에만 적용되는 본문이 있다. 그러나 칼빈은 제왕시들을 이스라엘 왕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께 성취된 관점에서 해석한다.

칼빈은 시편 2편을 주석하면서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2

64)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0–11.

65)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1.

66)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6.

67)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7.

68) 김성수, “칼빈의 성경해석: 시편 주석을 중심으로”, 82.

절)를 일차적으로 다윗에게 적용한다. 6절의 “나의 왕”도 일차적으로 다윗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sup>69)</sup> 7절에 나오는 “내 아들”이라는 말도 일차적으로 다윗에게 적용하고 “낳았도다”라는 의미도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 이후에 그는 “내 아들”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고 “낳았도다”라는 표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신 것으로 이해한다.<sup>70)</sup>

시편 72편 1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시편이 일차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만 솔로몬 후대의 왕들에 의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sup>71)</sup> 칼빈은 7-11절을 주석하면서 이 말씀이 일차적으로 다윗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의 시대에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 말씀처럼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이는 단순히 솔로몬 왕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씀임을 칼빈은 잘 알고 있다. 특히 8절(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과 11절(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의 말씀은 역사적인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적용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sup>72)</sup>

칼빈은 시편 89편 4절을 주석하면서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는 말씀은 부분적으로 솔로몬과 나머지 다윗 왕조의 후계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영원히” 혹은 “대대에”에 세운다는 말은 엄격한 의미에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적용이 된다고 주석한다.<sup>73)</sup>

---

69)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6.

70)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6-18.

71)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02-103.

72)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08-112.

73)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421-422.

#### 4. 신학적 해석

별코프(L. Berkhof)에 따르면 성경 해석자들 중에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성경의 신학적 성격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의 신학적 해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다수의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성경 해석에 ‘신비적’ 요소, ‘신학적’ 요소, 혹은 ‘성경적 해석’의 요소가 필요함을 주장한다.<sup>74)</sup> 별코프는 성경에는 역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차적인 저자”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소가 있다고 본다. 그는 예를 들기를 1)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2) 성경에는 “유기적 통일성”이 있고, 3)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모형과 대형, 예언과 성취, 신탁과 완전한 발전”처럼 상호연관성이 존재하는 점이 독특하다. 이런 양상들은 역사적, 심리적 해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별코프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제 3의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이를 “신학적 해석”이라고 명명했다. 그리하여 그의 고전적인 성경 해석학 책이 완성되었다.<sup>75)</sup>

칼빈의 주석에는 신학적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성경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것이나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나 모형론, 예언,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요소들은 모두 신학적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이제 칼빈의 신학적 해석을 요소별로 분석하려고 한다.

---

74)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133. 여기서 별코프가 말하는 ‘신비적’ 요소는 중세의 4중적 의미에서 말하는 ‘신비적’(anagogical) 요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별코프가 말하는 신비적 요소는 성경 해석학에서 말하는 신학적 해석과 거의 동일한 말이다.

75)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133-134.

## 1)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구약성경 해석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믿기 때문에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오늘날 성경해석자들처럼 구약을 신약에서 따로 떼어내어 해석하지 않는다.<sup>76)</sup>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구약 본문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해석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당시의 어떤 종교개혁자들보다 칼빈은 구약 본문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밝히는 것을 중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성취된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들은 기꺼이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곤 했다. 물러(R. A. Muller)는 신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구약성경을 해석한 것이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해석 방법 중에 하나로 꼽고 있다.<sup>77)</sup>

칼빈은 시편 2편의 모형론적 해석의 정당성을 신약시대 사도들의 성경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사도들의 구약해석을 “예언의 영”에 의한 해석으로 간주한다(행 4:24).<sup>78)</sup> 신약의 영향을 명백히 드러내는 곳은 시편 2편 2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Christ)로 번역한 데서 드러난다.<sup>79)</sup>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편에 사용된 “마쉬아흐”(מָשִׁיחַ)는 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번역이 된다(ESV, NIV, RSV, NRSV).

칼빈은 시편 89편 51[52]절(they have reproached the footsteps of thy Messiah [or thy Anointed].)을 주석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מָשִׁיחַ(머쉬해카)를 “당신의 메시아”라고 번역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괄호로 표기한다. 칼빈은 실제 주석을 하

76) 김성수, “칼빈의 성경해석: 시편 주석을 중심으로”, 92.

77) R. A. Muller, “The Significance of Precritical Exegesis: Retrospect and Prospect,” R. A. Muller and J. L. Thompson(eds.),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ra of the Reformation: Essays Presented to David C. Steinmetz in Honor of His Sixtieth Birthday* (Grand Rapids: Eerdmans, 1996), 339–342.

78)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1.

79)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9.

면서 “당신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메시아의 발자국”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sup>80)</sup> 이는 다분히 신약성경의 영향을 받은 해석이다. 이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왕을 조롱한 것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한 대표적인 경우가 칼빈의 시편 110편의 해석일 것이다. “이 시편이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여 쓰였다는 그리스도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나 사도들의 증언이 없다면 치더라도 이 시편 자체가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역설한다.<sup>81)</sup> 신약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이에 따라 구약을 해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110편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속성과 그의 제사장직의 영원성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칼빈은 주석하고 있다.<sup>82)</sup>

## 2) 모형론적 해석

칼빈은 알레고리적 해석(allegorical interpretation)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가하지만 모형론적 해석(typological interpretation)은 적극 활용하고 있다. 칼빈은 모형론적 해석과 알레고리적 해석을 이렇게 구분한다.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한 모형론적 해석은 역사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고 보지만 “제사 의식의 모든 상세한 부분들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알레고리적 해석과는 다르다”고 본다.<sup>83)</sup> 칼빈은 두 가지 관점에서 모형론적 해석의 정당성을 변증한

---

80)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456, 458.

81)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295.

82)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295.

83)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113–114.

다. 1)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예언으로 여긴다”는 점과 2) “언어가 다윗이나 구약의 다른 인물과 어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꼭 들어맞는다.”는 점이다.<sup>84)</sup> 그래서 칼빈은 모형론이 비록 다소 희미하고 그림자 형태로 주어지지만 “진짜 예언”으로 간주한다.<sup>85)</sup>

시편 2편이 원래 역사적 맥락에서는 다윗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고 보지만 이 시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모형론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본다.<sup>86)</sup> 다윗과 다윗의 왕조의 모형론적 의미를 밝히는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

그러나 이제 모형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이 이로부터 명백히 드러나는데, 다윗은 그의 나라가 단지 그림자뿐임을 알았다. 그리고 과거에 다윗이 무엇이든지 자신에 대해서 노래했던 것을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원리에 집착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모든 선지서에서 마주치는 것인데, 다윗과 그의 후손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구속자의 모형이 되기 위한 것이다.<sup>87)</sup>

칼빈은 시편 2편에서 국내외 적들이 동시에 다윗을 대적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그리스도의 적들도 국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적들도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고 본다.<sup>88)</sup>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왕에 대한 도전은 모형론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도전인

---

84)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117–118.

85)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114.

86)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9.

87)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1.

88)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0.

데, 이는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이기에 그들의 도전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주석한다.<sup>89)</sup> 7절의 “내 아들”이라는 표현도 다윗을 넘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늘과 땅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sup>90)</sup>

칼빈은 시편 110편을 주석하면서 서론 부분에 이 시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단언하면서도 1절(Jehovah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thine enemies thy footstool.)이 다윗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세상 다른 통치자들과는 다르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왕들과 구별이 되는 특별한 경우로 본다.<sup>91)</sup> 그러나 이 구절이 다윗에게만 전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칼빈은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 자신을 향해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예언의 영에 따라 그리스도의 미래 통치를 예언한 것으로 본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실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간성보다 더욱 위대한 뭔가가 있음”이 분명한데, 이 때문에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주라고 불린 것”이라고 본다.<sup>92)</sup>

시편 110편 1절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표현도 다윗에게는 단지 새벽 미명에 그치는 미약한 수준에서 적용되지만 그리스도

---

89)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2.

90)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7.

91)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297.

92)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297–298.

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모든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았고 그리스도의 보좌는 천상의 모든 권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로 높여질 것을 예언의 영을 통해 보이신 것이라고 칼빈은 주석한다. 여기서도 칼빈은 미약하게나마 다윗에게 적용하면서 이어서 그리스도께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칼빈의 이에 대한 주석은 다분히 모형론적이다.<sup>93)</sup>

### 3) 예언적 해석

구약성경이 수많은 예언들과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동의한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예언이 성취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인다.<sup>94)</sup> 예를 들면 이사야 59장 19절(서쪽에서 여호와와 이름의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을 해석할 때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 오직 바벨론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주로 그리스도께만 성취된 것으로 해석한다. 칼빈은 이런 양극단적인 해석을 좋아하지 않는다. 칼빈은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해석을 선호한다. 칼빈은 먼저 이런 본문이 구약시대에 포로귀환으로 성취된 것을 인정한다. 동시에 이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sup>95)</sup> 이런 관점에서 칼빈의 예언 이해는 모형론적 해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편 2편의 메시지는 모형론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본다.<sup>96)</sup> 시편 2편의 모형론적인 의미는 억지로나 풍유

93)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298.

94)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124-125.

95)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124-125.

96)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9.

적으로 그리스도께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께 대해 ‘진짜’ 예언한 것으로 본다.<sup>97)</sup> 이런 관점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표 본인 다윗 왕을 통해 원수들을 무력으로 물리친 것을 의미하지만, 이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대항하는 적들은 입 기운으로 질그릇 깨듯이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해한다.<sup>98)</sup>

그러나 7절은 다윗에게보다 그리스도께 더욱 진실하게 성취된 것으로 칼빈은 본다. 그는 다윗이 ‘예언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께 대해서 예언한 것으로 본다.<sup>99)</sup> 그리스도 자신께서 기적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한 권세를 받았음을 입증했다. 그리고 먼저는 사도들이 이어서 목사들과 교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주석한다.<sup>100)</sup> 칼빈은 8절의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라는 말씀도 다윗에게서 성취되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석한다. 비록 다윗이 주변의 이방나라들을 크게 정복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왕국은 당시의 열강들에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지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을 지배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만 적용되어야 할 예언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임을 밝히는 말씀으로 이해한다.<sup>101)</sup>

#### 4)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칼빈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그리스도 중심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

97)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1.

98)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20-22.

99)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6.

100)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6-17.

101)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8-19.

다고 본다. 구약과 신약은 구원의 기초를 모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두고 있다. 신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sup>102)</sup> 요한복음 5장 39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명확한 의도(the express design of finding Christ)를 갖고 읽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비록 그가 평생 지치도록 배운다고 할지라도, 결코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sup>103)</sup> 칼빈은 특히 그리스도의 해석에 최고의 권위를 두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성경의 가장 확실한 해석자”라고 칭한다.<sup>104)</sup>

칼빈은 시편 72편을 주석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이 여러 면에서 솔로몬의 통치보다는 메시아의 통치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sup>105)</sup>

칼빈은 시편 110편 5절(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을 주석하면서 이를 다윗 왕조의 왕에게 적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적용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의 적들을 파괴하고 흩어버리실 무서운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본다. 아무리 적들이 사악한 계계를 품고 그리스도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다.<sup>106)</sup> 6절도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시편 2편 8절이 밝히고 있듯이 땅 끝까지 정복하게 되실

102)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38-39.

103)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W. Pringle(trans.), (Grand Rapids: Baker, Repr, 2005), 1:2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존 칼빈, 『기독교 강요』(상), (원광연 옮김), (세계기독교고전 44;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2.11.1-14;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39-44.

104)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89.

105)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3:100.

106)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308.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께 반항하는 적들이 모두 그의 앞에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칼빈은 주석한다.<sup>107)</sup> 7절도 그리스도께 적용하는데, 이 구절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군사적인 용맹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마치 장수가 적을 추격하던 중 지나가는 길에 급히 목을 축이고 적을 쫓아가 기습하듯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석한다.<sup>108)</sup>

칼빈은 시편 132편 10, 17절에 나오는 מָשִׁיחַ(마쉬아흐)를 “그리스도”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신약적 관점을 구약의 번역에 삽입한 경우이다.<sup>109)</sup>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번역하고 있다. 물론 이의 구성적 맥락에서 보면 “메시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12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대해 주석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칼빈은 해석한다.<sup>110)</sup> 13절에는 왕국과 성막이 결합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sup>111)</sup> 17절에 나오는 ‘등’은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등은 비록 미약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충만한 빛을 발하신다고 주석한다.<sup>112)</sup> 같은 절에 ‘뿔’ 역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sup>113)</sup> 18절에 나오는 왕관도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 미약하게 빛을 발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왕관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빛날 것이라고 그리스도 중심적으

107)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308.

108)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309.

109)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5:152, 159.

110)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5:156.

111)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5:157.

112)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5:161.

113)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5:160–161.

로 해석한다.<sup>114)</sup>

## 5) 성경으로 성경 해석

칼빈의 성경해석의 특성 중에 하나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안명준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칼빈의 성경해석의 두 가지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sup>115)</sup> 칼빈의 이 해석의 원리 때문에 그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다른 성경을 인용하여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을 종종 보게 된다.<sup>116)</sup>

칼빈은 시편 110편 1절을 주석하면서 이 말씀이 다윗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대답을 통해서 볼 때 명백함을 밝힌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이에 근거하여 다윗이 예언의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미래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주석한다.<sup>117)</sup>

시편 110편 4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다윗은 제사장직을 가질 수 없음을 웃시아의 사건을 인용하여 변증한다. 역대하 26장 21절에 웃시아 왕이 하나님께 향을 드리려다가 문둥병에 걸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왕이 제사장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은 다윗이나 다윗 왕가의 왕에게 적용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적용됨을 밝힌다.<sup>118)</sup> 6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유대 나라에서만 왕이 아니라 그의 권세는

114)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5:162.

115) 안명준, "칼빈에 따른 성경해석의 두 원리", 83-115.

116) 라영환, "칼빈의 성경해석학", 247; 임용섭, "칼빈의 성경해석학적 공헌", 『개혁논총』 12 (2009), 113-114.

117)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297-298.

118)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305-306.

세상 끝까지 정복하게 될 것을 시편 2편 8절(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을 인용하여 설명한다.<sup>119)</sup>

## 5. 적용성이 있는 성경해석

칼빈은 본문의 각 구절을 주석한 이후에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주저 없이 적용한다. 이는 칼빈의 성경해석 목적이 결국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교화에 있기 때문이었다.<sup>120)</sup>

칼빈은 시편 2편 2절을 주석하면서 원래 역사적 관점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다윗에게 도전한 것으로 이해했고, 이는 모형론적으로 그리스도께 도전한 것으로 해석했고, 나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들의 성경해석에 기초하여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도전한 것으로 이해했다.<sup>121)</sup>

칼빈은 시편 110편 1절을 주석하면서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의 의미를 일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적들을 정복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칼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예언은 마지막 날 전까지는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 끝날까지 때때로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석한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함을 적용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결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고 적들은 마침내 그리

---

119)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308.

120)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J. Owen(trans.), (Grand Rapids: Baker, Repr, 2005), xxiv; 라영환, “칼빈의 성경해석학”, 244. 라영환도 “칼빈의 해석학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해석의 목적이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는데 있다”라고 보고 있다.

121)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12-13.

스도의 발아래 엮드리지게 될 것이라고 주석한다.<sup>122)</sup>

칼빈은 시편 110편 2절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 끝까지 확장될 것을 밝힌 후에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삶에 적용시킨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위해서 다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스리 시기에 우리는 이 무적의 왕의 보호아래 모든 죄고들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되 리라고 확신하며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상태는 많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왕국은 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또한 우리를 끊임없는 전투 상태에 묶어 놓도록 설계된 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온유를 훈련하게 한다. 그래서 전 세계의 분노를 담대히 무력화시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sup>123)</sup>

본문의 주석학적 의미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한 이후에 칼빈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런 적용에 대한 민감성이 오늘날 주석가들이 칼빈에게 배워야 할 귀중한 주석의 기술이 아니겠는가?

## 6. 나가는 말

크라우스(H.-J. Kraus)는 칼빈의 해석학적 원리를 8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명료성과 간결성,” (2) “저자의 의도” 추구, (3) 본문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관심, (4) 단순하고도 원래의 진솔한 문법적 의미의 확립, (5) 문맥 속에서 본문을 조사함, (6) 문자적인 어법을 넘어서 신적

---

122)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299.

123)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4:300–301.

저자의 의도를 추구하는 해석 (예, 십계명의 주석), (7) 비유법에 대한 인식, 그리고 (8) 기독교론적 해석의 중요성이다.<sup>124)</sup>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칼빈의 제왕시 주석에는 크라우스가 말한 이 8 가지 특성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를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성경해석학 원리인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에 따라 분류하였다. 부차적으로 적용성이 있는 주석 원리를 함께 다루었다.

칼빈의 주석은 현대의 웬만한 주석가들의 주석을 넘어선다.<sup>125)</sup> 그의 원문에 기초한 주석과 특히 단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용례 연구, 문맥 속의 의미 연구와 아울러 문예적 특성까지 연구한 방법론은 지금도 그 원리를 그대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주석 방법이다.

칼빈의 역사적 해석은 오늘날까지 학자들이 칼빈의 주석을 자주 참고하는 이유가 된다. 그는 시편 저자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철저히 연구하여 먼저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를 찾았다. 이어서 신약에서 완성된 의미를 찾았다. 이는 오늘날 주석가들의 역사적 해석의 모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퍼킷은 토렌스(Torrance)의 말을 빌려 칼빈이 현대적 의미의 해석학적 기초를 놓았다 평가한다.<sup>126)</sup>

마지막으로 칼빈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상호본문성 (intertextuality)을 갖고 해석한 것은 시편 본문의 완성된 의미를 밝히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본다.<sup>127)</sup> 칼빈은 통제되지 않은 알레고리적 해석을 거부하고 대신에 구약을 신약의 관점에서 모형론적으로, 예언적

124) Hans-Joachim 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Interpretation* 31 (1977), 8-18.

125) 물론 현대 해석학이 발전하면서 통시적, 공시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었다. 최근 시편 해석 방법론에 대한 개관은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라.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15/2 (2009), 30-62; 왕대일, "시편 읽기, 시편 해석하기, 시편 살기", 「구약논단」 15/3 (2009), 6-8; 김태경, "시편 연구사: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20/3 (2014), 325-3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가들이 어떤 특정한 방법론에 너무 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리는 주석학적인 균형을 칼빈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126)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9.

127) 라영환, "칼빈의 성경해석학", 237.

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은 개신교 구약해석의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성경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청중과 교회에 적용성이 있는 그의 주석 방법은 단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귀중한 성경해석의 유산이다.

오늘날 해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의 시편 주석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신약의 의미를 과도하게 구약본문에 대입하여 번역하고 해석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제왕시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바로 번역하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주석하면서 가끔씩 오류가 나타나는 것도 칼빈 주석을 사용하는 독자들이 조심해야 할 바들이다. 마지막으로 크라우스가 말한 칼빈의 “명료성”의 원리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칼빈의 이 견해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문제를 다른 글에서 다룬 적이 있다.<sup>128)</sup> 이런 옥의 티를 제외하면 칼빈의 주석은 오늘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성경 이해를 위해 지속적인 귀중한 안내역을 하게 되리라고 본다.

## 7. 참고문헌

김성수, “칼빈의 성경해석: 시편 주석을 중심으로”, 『ACTS 신학과 선교』 8 (2004), 78-95.

김진규, “시편 144편의 전략적 배열의 관점에서 본 저작 배경”, 『구약논단』 21/3 (2015), 69-98.

\_\_\_\_\_, “이사야 4:2의 해석에 나타난 칼빈의 주석 원리들: 텔리취와 비교의 관점에서”, 『개혁논총』 11 (2009), 33-62.

---

128) 김진규, “이사야 4:2의 해석에 나타난 칼빈의 주석 원리들: 텔리취와 비교의 관점에서”, 『개혁논총』 11 (2009), 33-62.

- \_\_\_\_\_,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구약논단」 15/2 (2009), 83-110.
- 김태경, “시편연구사: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20/3 (2014), 325-356.
- 라영환, “칼빈의 성경해석학: 칼빈의 역사적 문법적 방법론에 대한 재조명”, 「개혁논총」 11 (2009), 233-251.
- 스텍 J. H. 외(편집), 「홀리윈 주석 성경: NIV 스테디 바이블」, (김지찬 외 역), (서울: 예장, 2008). 원제 J. H. Stek, et al. (eds), *The NIV Study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5).
- 안명준, “칼빈에 따른 성경해석의 두 원리”, 「조직신학연구」 19 (2013), 83-115.
- 왕대일, “시편 읽기, 시편 해석하기, 시편 살기”, 「구약논단」 15/3 (2009), 6-8.
-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15/2 (2009), 30-62.
- 임용섭, “칼빈의 성경해석학적 공헌”, 「개혁논총」 12 (2009), 109-150.
- 칼빈, 존, 「기독교 강요」(상), (원광연 옮김), (세계기독교고전 44;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하경택, “시편 82편의 해석과 적용: 하나님이며, 이 땅을 심판하소서”, 「구약논단」 15/3 (2009), 49-66.
- Arndt, W. F. and F. W. Gingrich, "κρίμα"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2n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450-451.
- Arndt, W. F. and F. W. Gingrich, "κρίσις"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2n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 Chicago Press, 1979), 452-453.
- Berkhof, Louis,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1988).
- Brown, F. et al., "הרה,"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Ma: Hendrickson, 1979), 217.
- Carson, D. A., *Exegetical Fallacies* (Grand Rapids: Baker, 1984).
-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1, J. Anderson(trans.), (Grand Rapids: Baker, Repr, 2005).
- \_\_\_\_\_,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3, J. Anderson(trans.), (Grand Rapids: Baker, Repr, 2005).
- \_\_\_\_\_,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4, J. Anderson(trans.), (Grand Rapids: Baker, Repr, 2005).
- \_\_\_\_\_,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5, J. Anderson(trans.), (Grand Rapids: Baker, Repr, 2005).
- \_\_\_\_\_,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J. Owen(trans.), (Grand Rapids: Baker, Repr, 2005).
- \_\_\_\_\_,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vol. 1, W. Pringle(trans.), (Grand Rapids: Baker, Repr, 2005).
- Kraus, Hans-Joachim,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Interpretation* 31 (1977), 8-18.
- \_\_\_\_\_, *Psalms 60-150: A Commentary*, H. C. Oswald(trans.), (Minneapolis: Augsburg, 1989).
- Muller, R. A.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16th & 17th Centuries," D. K. McKim(ed.), *Historical Handbook of Major*

*Biblical Interpreters* (Downers Grove: IVP, 1998), 121-152.

\_\_\_\_\_, "The Significance of Precritical Exegesis: Retrospect and Prospect," R. A. Muller and J. L. Thompson(eds.),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ra of the Reformation: Essays Presented to David C. Steinmetz in Honor of His Sixtieth Birthday* (Grand Rapids: Eerdmans, 1996), 335-345.

Muller, R. A. and J. L. Thompson(eds.),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ra of the Reformation: Essays Presented to David C. Steinmetz in Honor of His Sixtieth Birthday* (Grand Rapids: Eerdmans, 1996).

Poythress, V. S. *Understanding Dispensationalists* (Grand Rapids: Zondervan, 1987).

Puckett, D. L.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Wilson, G. H.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검색어

칼빈

시편

제왕시

성경해석

문법적/문예적/역사적/신학적 해석

## A Study on Calvin's Exegetical Methodology for Royal Psalms

Jinkyu Kim, Ph.D.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On the occasion of the 500<sup>th</sup> anniversary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Calvin's exegetical methodology for the Psalm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royal psalms. Because of the limited space, Psalms 2, 72, 89, 110, and 132 were selected to be studied. This study analyzes Calvin's exegetical methodology for these psalms, specifically from a grammatical/literary,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 It also examines Calvin's method of appli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llowing details:

First, Calvin's grammatical interpretation such as the pursuit of the plain literary sense of words, the study of etymology, the usage of

[www.kci.go.kr](http://www.kci.go.kr)

words, the context of words, and the study of the original language.

Second, Calvin's literary interpretation and utilization of literary features such as personification, metaphor, figures of speech, imagery, metonymy, synecdoche, hyperbole, and so on.

Third, Calvin's historical interpretation, specifically in terms of how he understands the author, historical background, original meaning of the text, and its relation to the New Testament.

Fourth, Calvin's theological interpretation, which further examines typological, prophetic, Christ-centered, and inner-biblical interpretation.

Fifth, Calvin's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message of the text to the situations of the audience when he has finished exegeting the text.

As a result of this study, I came to realize that we can still utilize some of Calvin's exegetical methods today. Calvin makes use of many useful methods of interpretation, such as the study of the original language and words, literary analysis, historical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original historical context,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including typology, promise-fulfillment, and Christ-centered interpretation. However, the readers who use Calvin's commentaries should discern when he reads the meaning of the New Testament into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text. Besides, the readers should be aware of inaccuracies in Calvin's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language, which occur in his commentaries from time to time.

## Keywords

Calvin

Psalms

royal psalms

biblical interpretation

grammatical/literary/historical/theological interpretation

- 투고일: 2017년 10월 1일
- 심사일: 2017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30일

[www.kci.go.kr](http://www.kci.go.kr)